

e-ISSN: 2536-4596

KARE- Uluslararası Edebiyat, Tarih ve Düşünce Dergisi

KARE- International Journal of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Başlık/ Title:** *Hwarangdo ve Kadın*

**Yazar/Author**  
Jung Hye LEE

**ORCID ID**  
0000-0002-8507-461X

**Makale Türü / Type of Article:** Araştırma Makalesi / Research Article

**Yayın Geliş Tarihi / Submission Date:** 17 Nisan 2019

**Yayına Kabul Tarihi / Acceptance Date:** 18 Ağustos 2019

**Yayın Tarihi / Date Published:** 31 Ağustos 2019

**Web Sitesi:** <https://karedergi.erciyes.edu.tr/>

**Makale göndermek için / Submit an Article:** <http://dergipark.gov.tr/kare>

Yazar: Jung Hye LEE\*

## Hwarangdo ve Kadın<sup>1</sup>

**Özet:** ‘Genç Çiçek Birliği’ anlamını taşıyan Hwarangdo, Şilla’nın asilzade genç erkeklerinden oluşan toplumsal bir organizasyondur. Hwarangdo, bir bakıma asker niteliğinde olup Şilla’nın bir ülke olarak gelişip güç kazanmasında büyük bir katkıda bulunmuştur. Ayrıca Hwarangdo, Şilla’nın merkezi idari sistemi güçlendirmek ve ufku açık, kabiliyetli gençler yetiştirerek üç krallığın bileştirmesinde büyük rol oynamıştır. Fakat Hwarangdo yalnızca erkeklerin toplumsal kurumu olmamakla birlikte, Hwarangdo sisteminin oluşmasında ve kuruluşunda Şilla kadınlarının yeri oldukça büyüktür. Özellikle 1989 yılında, Hwarangsegi’nin ortaya çıkmasıyla uzunca saklı kalınan Şilla’nın yegâne sistemleri ile Wharando’daki göze çarpan kadınların rolleri belirlenmeye başlamıştır. Hwarangdo’nun kuruluşu ve Pungwelcu’nun atanması, Hwarangdo’nun kollarının oluşumu ayrıca Hwarangdo’nun ortadan kaldırılmasına dek her aşamasında Şilla krallığının kadınları yer almaktadır. Wonwhoa’yı ortadan kaldırıp Pungwelcu idaresindeki Hwarangdo’yu kuran kişi 24. Kral Jinhung’ın annesi kraliçe Jiso’dur. Hwarangdo’yu ortadan kaldıran da 31. kral olan Sinmun’un annesi Kraliçe Jayı olmuştur. Nangmun’da Nangduların sosyal statüsü ve vazifesini sağlayan Bongwha’dır. Pungwelcu’nun mevkisini ve otoritesini sağlamlaştırın temel sebep de Hwacu’dur. Şilla’nın bir ülke olarak idare açıdan gelişmesinde önemli bir olgu olarak rol üstlenen Wonwhoa ve Hwarangdo’nun asıl idari güçleri krallığın prensesleri, kraliçeleri ve kralların anneleridir. Bu durum, diğer krallıklarda görünmeyen sadece Şilla Krallığında görülen kadınların yegâne vazifelerini ve rollerini yansıtmaktadır. Dolayısıyla bu bakımdan, bu çalışmada incelenecek olan Hwarangdo sistemi ile kadınların ilişkileri, Şilla toplumunda yer alan kadınların üst mevkilerde yer alıp, kadınların rollerinin büyük olduğunu göstermektedir. Şilla toplumunun kabullendiği idari anlayış ve onlara ait olan bir öz dünya vardı. Bu açıdan da Hwarangdo ve kadınların ilişkisi, Şilla halkının geliştirdiği özel toplum yapısını gösteren bir pencere olabilmektedir.

**Anahtar Kelimeler:** Hwarangdo, Kadın, Jiso, Wonwhoa, Hwacu

## 화랑도와 여성

### Abstract:

신라 귀족 자체들로 형성된 단체인 화랑도는 일정량 군사적 성격을 지닌 기구로서 신라가 국력을 신장시키고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신라가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해가고, 또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뤄 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화랑도는 남성들만의 집단이 아니라 설립과 조직체계 전반에 걸쳐 신라 여성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별히 1989년에 발견된 『화랑세기』의 출현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라의 독특한 사회현상과 화랑도에 서의 여성들의 두드러진 활약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화랑도의 설치와 풍월주의 임명 그리고 화랑도의 파맥형성 및 폐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신라 왕실의 여성들이 있었다. 원화를 폐지하고 풍월주를 우두머리로 한 화랑도를 편성한 사람은 24대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후였고, 풍월주 중심의 화랑도를 폐지한 자는 31대 신문왕의 어머니인 자의태후였다. 낭문에서 낭두들의 사회적·신분적인 발판이 되어준 것은 봉화였고, 풍월주의 지위를 지탱해 준 기반 중 하나도 화주였다.

신라가 국가적 규모를 갖춰갈 때 중요한 조직으로서 기여했던 원화나 화랑도의 실세들 또한 왕실의 공주나 왕후 및 태후들이었다. 이 또한 다른 왕조사에서는 볼 수 없는 신라 사회에서만 보여지는 여성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도 본고에서 살펴 볼 화랑도와 신라 여성들의 관계는 신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고 정치적·사회적 역할들이 독특했음을 보여준다. 신라 사회는 신라인들만의 통치원리가 있었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화랑도와 여성들의 관계는 신라인들과 신라인들이 형성한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Keywords:** 화랑도 여성 지소 원화 화주

\* Öğr. Gör. Dr., Erciyes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Böl., [leeistanbul@gmail.com](mailto:leeistanbul@gmail.com)

<sup>1</sup> **Editor Notu:** Makalede farklı yazı tipi ve paragraf düzeni kullanılmıştır.

## 1. 들어가는 말

삼국시대의 신라는 고구려·백제와는 다른 신라 특유의 사회구조 및 문화현상을 드러내는데, 유독 신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두드러진다. 특히 신라왕실의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신라의 사회제도나 정치체계 형성에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신라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들이 골품제도, 화랑도, 삼국통일, 여왕이라는 어휘들이다. 신라의 강력하고 폐쇄적이었던 출신성분에 따라 신분과 관등이 정해지는 골품제도, 그 골품제도를 기반으로 여성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회, 그 사회의 특권층인 귀족자제들의 연합체인 화랑도, 그 화랑도의 공헌이 두드러지는 삼국통일, 이런 요소들이 '신라'라는 국가체제의 틀을 형성해간다. 신라의 이러한 독특한 제도나 조직들 중 하나인 화랑도는 한반도 동남쪽의 작은 부족연합체에서 출발했던 신라가 국가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갖춰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신라 왕권의 강화와 그에 따른 국력신장의 핵심 기구로서 신라가 삼국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주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신라의 국력신장에 기여한 화랑도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화랑도가 영웅호걸 혹은 순국무사들만의 조직체나 남성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화랑도의 출현 배경이나 그 기원에 신라 여성들의 지위와 활동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신라 사회의 도드라진 특징 중 하나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고 또 사회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이다. 신라인들은 일찍이 그들의 건국자나 시조모를 같은 선상에 배열했는데, 이것은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현상으로 유독 신라에서만 시조모인 알영이 건국시조인 박혁거세와 나란히 '탄생신화'라는 틀에서 출발한다. 건국신화에서 박혁거세와 대등한 동반자로서 출발한 알영의 통치자적 지위는 고대 신라 여성들의 독자적인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근간이 되었고, 이 전통은 신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sup>2</sup> 신라인들은 시조모인 알영부인뿐만 아니라 남해왕의 왕후인 운제부인, 충신 박제상의 부인인 치술공주를 국신으로 추앙했다.<sup>3</sup> 또 남해왕의 누이인 아로공주는 박혁거세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했다.<sup>4</sup> 고대사회에서는 종교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따라서 아로처럼 여성이 국가의 제사를 주관했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알영부인-아로공주-조생부인(鳥生 夫人)-원화(源花)-유화(游花)로 이어져 내려온 여성 전통은 예언과 치유, 사제와 유희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로 신라의 종교·사회·정치영역에서 그 역할을 발휘하였다.<sup>5</sup>

화랑도는 신라의 이러한 독보적인 여성적 위상이 고스란히 스며들어가 종교적·정치적 능력을 발휘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화랑도는 여성이 수장이었던 원화제에서 출발하여 화랑도의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행사한 자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sup>2</sup> 김선주,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활동",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vol.77(2005), p.3,6-7; 하현진, "『화랑세기』에 나타난 신라 여성의 지위와 활동",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vol.7:2 (2010), p.96-97.

<sup>3</sup> 알영부인편, 일연, **삼국유사**, 권 제5 감통 제7, "선도성모가 불교 일을 좋아하다", 김원중 역, 민음사, 서울:2008, p.516; 운제부인편, 일연,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제2대 남해왕", p.62; 치술공주편, 일연,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내물왕과 김재상", p.85.

<sup>4</sup> 김부식, **삼국사기II**, 권 제32 잡지 제1, "제사", 이강래 역, 한길사, 파주: 1998, p.620.

<sup>5</sup> 김선주,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활동", p.8-9; 하현진, "『화랑세기』에 나타난 신라 여성의 지위와 활동", p.98-99.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랑도의 실제적 설립자인 지소태후, 화랑도의 기원인 원화의 기능과 역할, 특별히 『화랑세기』를 통해 드러나는 화랑도 조직의 실제 여성들- 풍월주의 임명권자 및 화랑 파맥 형성의 후원자- 과 화랑과 낭도들의 정치적·사회적 신분상승의 한 매개체적 역할을 담당했던 화주 및 봉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신라의 중앙집권적 왕권확립과 국력신장이라는 정치적 전환점을 이뤄가는데 공헌한 화랑도가 단지 신라 남성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신라 여성들의 종교적 기능과 정치적 기량 및 사회적 활동 무대였음을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아울러 이 고찰은 유독 사회적 지위나 위상이 높았던 신라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역량이나 활동들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되리라 생각된다.

## 2. 화랑도와 여성들

### 2.1. 화랑도(花郎徒)의 기능과 역할

신라에는 진골출신의 젊은이를 '화랑'으로 삼고, 그를 좇는 젊은이들을 '낭도'라 칭하며 계층과 신분을 초월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화랑제도라고 한다. 화랑은 '국선' 또는 '풍월주'라고도 했다. 신라의 화랑이 어디서 기원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사회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그 기원을 찾는 사람은 이것이 원시 사회의 청소년 조직 내지 비밀결사, 연령계급 제도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sup>6</sup> 단재 신채호는 신라의 국선은 고구려의 선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화랑은 본래 상고시대 소도제단의 무사로서 당시에 '선배'라고 일컬어지던 자라고 보았다.<sup>7</sup> 또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그 기원을 찾아, 진흥왕의 섭정이었던 모후 지소태후에게 봉사하고 있던 청소년 집단이 화랑의 모체가 되었다고 보아 이른바 군사 엘리트의 보충을 위한 특수조직으로 보기도 한다.<sup>8</sup> 따라서 화랑은 관창, 김유신 같은 순국무사나 영웅호걸의 이미지로 그려지곤 했다. 그러나 1989년과 1995년 박창화가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발견되면서, 화랑과 신라사회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라의 새로운 모습들로 인해 출현 당시부터 진위여부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화랑세기』는 화랑도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알려주는 사료로서<sup>9</sup>, 특별히 화랑도와 신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들을 조명해주는 데도 특특히 역할을 하고 있다. 『화랑세기』는 5대째 풍월주 가문의 후손이었던 김대문이 681~687년 사이에 저술한 화랑도의 32명의 풍월주에 대한 전기이다. 김대문은 대대로 풍월주를 배출했던 자신의 가문이 화랑도가 폐지됨으로써 소멸 위기에 봉착하자, 풍월주가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 가졌던 사회·정치적 지위 및 화랑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 저술했다. 『화랑세기』에는 역대 풍월주들의

<sup>6</sup> 손인수, **신라 화랑도의 공간**, 문음사, 서울: 1996, p.17-27; **한국민족대백과**, "화랑",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sup>7</sup> 고구려의 선배는 학문과 더불어 궁술, 기마, 태권, 씨름 등 각종 무예를 익혀 평시에는 환난구제사업, 성곽·도로 등을 수축하다가 비상시에는 전장에 나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조직체로, 신채호는 이 전통을 특히 '낭가사상'이라고 했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김중성 역, 위즈덤 하우스, 고양: 2014, p.330; 소이원, **21세기 화랑도**, Essay, 2010, p.136-137

<sup>8</sup> 손인수, **신라 화랑도의 공간**, p.92-95; 서의식, **한국사 이야기-고조선·삼국-**, 가람기획, 서울: 2015, p.397.

<sup>9</sup> KBS 역사스페셜, "화랑세기 필사본의 미스터리", (1999.07.10)

세보, 화랑도의 낭정, 화랑의 파맥, 신라왕실의 죽혼 및 근친혼, 마복자(마복녀) 개념<sup>10</sup>, 왕비족, 근친상간, 남녀관계 등 신라사회의 민낯이 적랄하게 드러나 출현과 동시에 사료로서의 진위성 논란으로 역사학계의 뜨거운 논쟁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랑세기』는 신라 사회 체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으로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공백으로 자리하는 신라 사회의 독특한 제도와 고유한 여러 현상을 조명해주는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sup>11</sup>

화랑도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하여 김대문은 『화랑세기』 서문에서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났고 훌륭한 장수와 병졸이 이로 말미암아 나왔으니, 화랑의 역사는 가히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12</sup> 또 『삼국사기』는 화랑도의 설치 기원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 뒤 다시 미모의 남자를 골라 단장하고 꾸며서 화랑(花郎)이라 이름하고 받들게 되었다. 낭도의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혹은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을 서로 즐기며, 산과 강을 찾아 노닐어 멀리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해 그 사람됨의 옳고 그름을 알아 그 가운데 훌륭한 이를 가려서 조정에 추천하였다.”라고 언급한다.<sup>13</sup> 위에 기술된 『삼국사기』나 『화랑세기』에 의하면, 화랑도의 설립은 신라 조정의 인재양성이나 관인선발이 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랑도가 처음 제도로써 성립한 것은 진흥왕 때이었다. 진흥왕은 율령을 반포한 법흥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후, 그때까지의 신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이다. 진흥왕 때에는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전왕이 반포한 율령의 기초 위에서 왕권을 크게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진골 왕족들에게 국가의 요직을 주어 진골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격의 지배세력으로 대두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법흥왕 때까지는 신라의 현실정치가 6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마저도 6부 중의 한 부인 탁부에 소속했으며, 왕족들은 6부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6부의 대표들이 모여 국정을 의논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왕이 실행했다.<sup>14</sup> 그렇지만 진흥왕부터 국왕은 더 이상 소속부를 갖지 않았다.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가 확립되어 6부의 결정보다 국왕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었다.<sup>15</sup> 이러한 강력한 왕권을 진골 왕족들이 뒷받침했다. 따라서 진골을 중심으로 소속부와 계층을 초월하여,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들을 널리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필요했는데, 이에 만들어진 것이 화랑제도이다. 화랑제도는 진골 중심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새로운 인력동원체제로 성립했다.<sup>16</sup> 화랑도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역할은 무사적 기

<sup>10</sup> 마복자는 “문지를 마(摩), 배 복(腹), 아들 자(子)”로 구성된 단어로, 배를 쓰다듬어 낳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다. 마복자에 대응하는 단어가 마복녀이다. 마복자 제도는 화랑이 임신한 부하(낭두)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장치였다; 김대문, **화랑세기- 신라인의 신라이야기**,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서울:1999, p. 30; 이종욱, **화랑**, 휴머니스트, 서울: 2003, p.91.

<sup>11</sup> 김대문, **화랑세기**, p.12-42.

<sup>12</sup> 김대문·각훈, **화랑세기/ 해동고승전**, 여성구 역, 지식은만드는지식, 서울: 2012, p.24.

<sup>13</sup> 김부식,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p.128.

<sup>14</sup> 전덕재, “정치 운영 원리와 신분제-고대 사회의 핵심 키워드, 부와 골품”, **한국고대사 2**, 김재홍의 3명, 푸른역사, 서울:2016, p.139-141; pmg 지식엔진연구소, “화랑”,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sup>15</sup> 박영규, **신라왕조실록**, 웅진 지식하우스, 파주: 2004, p.236.

<sup>16</sup>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역사와 현실**, Vol.67(2008), p.103.

능으로, 화랑도는 신라가 삼국 간의 치열한 영토 전쟁과 주도권 싸움에서 결국 승자가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게 했던 신라 군사력의 핵심 축이었다.<sup>17</sup> 따라서 화랑제도는 나라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사회통합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다.<sup>18</sup> 이렇게 신라에서 중앙집권적 왕권강화 및 국력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화랑도는 단지 남성만을 위한 인재양성기관이 아니었다. 본고에서 화랑도는 그 설립에서부터 신라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과 종교적 지위가 발휘된 장(場)이었고, 화랑도의 실세들은 신라 왕실의 여성들이었음을 또한 보게 될 것이다.

## 2. 2. 화랑도의 설립자

앞에서 기술했듯이, 화랑도는 진흥왕(재위 540-576)때에 설립되었다. 진흥왕은 법흥왕의 아우인 김입종과 법흥왕의 딸 지소태후의 소생으로 이름은 삼맥종이었다. 일곱살이 되던 540년에 법흥왕이 죽자 모후 지소태후의 섭정을 받으며 왕위에 올랐다.<sup>19</sup> 『삼국유사』는 진흥왕의 등극 시기가 15살이었기에 지소태후가 섭정을 했다고 한다.<sup>20</sup> 진흥왕이 일곱 살이든 열다섯 살이든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한 사람은 지소태후였다. 신라에서는 진흥왕대에 처음으로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왕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섭정이라는 비상체제를 불러왔다. 그러므로 신라사에서 섭정을 처음 담당할 사람도 지소였다. 특히 섭정자였던 지소에게는 신라에서 처음으로 태후(太后)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다. 조선시대의 수렴청정은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등 왕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신라시대에는 여성만이 섭정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라에서 섭정은 왕과 관련된 왕실 여성이 자동적으로 담당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정권을 담당할 것이었다.<sup>21</sup>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12년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3월에 국내를 순수(巡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

<sup>17</sup> 신라에서 화랑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화랑도는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는 마당이었으며, 동시에 계층을 초월하여 사회통합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군사력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는데 공헌했다. 화랑도의 주요 이념인 사군이충과 임전무퇴는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전쟁에서는 순국무사의 역할로 왕권과 국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에는 반란세력의 요람으로 그 성격과 역할이 변질되면서 왕의 명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화랑도의 설치와 폐지 및 나라에 대한 공헌도는 오스만제국의 YeniÇeri(새로운 군대)군단과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예니체리는 오스만 국가가 서방세계로의 진출과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군사력이었고, 술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전쟁에서의 용맹성으로 유명했다. 인재등용의 한 관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력이 커지면서 술탄에 대한 반란세력으로 자리하게 되자 끝내 술탄에 의해 폐지되는 역사적인 전철도 화랑도와 거의 비슷한 경로를 밟는다; 서의식, **한국사 이야기-고조선·삼국-**, p.400-402; 손인수, **신라 화랑도의 공간**, p.94-95; 리선근, **화랑도와 삼국통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1974, p.72-73; 이희철, **튀르크인 이야기**, 도서출판 리수, 서울: 2017, p.251-254; 도널드 쿼터트, **오스만 제국사(1700-1922)**, 이은정 역, 사계절, 파주:2008, p.65-66; Kemal Beydili, "Yeniçeri", **DİA**, Türkiye Diyanet Vakfı, İstanbul, 2013, Cilt 43, 450-462;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터키사-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터키-**, 휴먼니스트, 서울: 2010, p.141-145; 이희수, **터키사 100**, 청아출판사, 파주: 2017, p.193-195.

<sup>18</sup> 서의식, **한국사 이야기-고조선·삼국-**, p.400,402.

<sup>19</sup> 김부식, **삼국사기 I**, 신라본기 제4, "진흥왕", p.123.

<sup>20</sup> 일연, **삼국유사**, 기이 제1, "진흥왕", p.92.

<sup>21</sup> 김선주, "신라의 여성정치가 지소태후",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Vol.9(1988), p.188-189; 김선주,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활동", p.15.

진흥왕의 친정(親政)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2</sup> 그렇다면 진흥왕 재위 초기 10여 년은 진흥왕의 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섭정자였던 지소태후가 실제 실권을 가지고 정치를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세의 어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던 지소태후가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정권을 이양 받은 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심열을 기울여 실시한 정책이 인재양성 정책이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는 명망 있는 귀족 출신의 남녀들이 휘하에 여러 젊은 남자들을 거느리는 사조직이 유행했다. 지소태후는 이런 형태의 조직을 공인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공적인 국가조직으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선화와 원화제도였다. 선화제도는 왕족 출신의 남자를 선화로 삼아 그 아래에 여러 낭도를 거느리게 하는 것이고, 원화는 왕족 출신의 여자를 원화로 삼아 그 아래에 여러 낭도들을 거느리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속한 낭도들은 대개 귀족의 자제들이었는데, 지소태후는 이 낭도들을 키워 조정의 재목으로 삼고자 했다. 화랑도의 설립에 대해 『삼국사기(진흥왕 37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봄에 비로소 원화(源花)를 받들었다. 처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인재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것을 비통히 여겨,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지어 노닐도록 해서 그 행동거지를 살핀 다음에 천거해 쓰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어여쁜 여자 두 사람을 뽑으니 한 사람은 남모요, 또 한 사람은 준정이었다. 무리 3백여 명을 모았는데 두 여자가 미모를 다투어 서로 질투하더니,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그녀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다음, 끌어다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이에 준정은 죽음을 당하였고, 그 무리들도 화목을 잃어 흩어지고 말았다. 그 뒤 다시 미모의 남자를 골라 단장하고 꾸며서 화랑(花郎)이라 이름하고 받들게 되었다. 낭도의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혹은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을 서로 즐기며, 산과 강을 찾아 노닐어 멀리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해 그 사람됨의 옳고 그름을 알아 그 가운데 훌륭한 이를 가려서 조정에 추천하였다.<sup>23</sup>*

위에 기술된 『삼국사기』의 기록이나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의 서문-"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났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이로 말미암아 나왔으니....."-에 따르면, 원화나 화랑도의 설립은 신라 조정의 인재양성이 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화제도 내부에서 알력이 생겨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원화는 폐지되었고, 그 아래에 있던 낭도들은 흩어지거나 선화에 합쳐졌는데, 이것이 화랑제도의 시초였다고 한다. 화랑의 원래 이름은 풍월이었고, 그 우두머리를 풍월주라고 했다. 그런데 초대 풍월주가 위화랑이었던 까닭에 우두머리를 화랑이라 부르고, 그 무리를 화랑도라고 칭했다.<sup>24</sup>

『삼국사기』는 화랑제도가 진흥왕 37년인 576년에 시행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 초기

<sup>22</sup> 김선주,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활동", p.15.

<sup>23</sup> 김부식, **삼국사기 I**, 신라본기 제4, "진흥왕", p. 128.

<sup>24</sup> 김대문, **화랑세기**, p.45.

편찬 사서들인『삼국사절요』와『동국통감』에서는 진흥왕 원년에 설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화랑세기』에서도 원화의 부활과 관련하여 화랑도의 설립이 진흥왕 원년으로 나온다.『화랑세기』“제 6세 풍월주 세종전”을 보면, 화랑이 폐지되고 원화가 부활되어 미실을 원화로 임명하면서 진흥왕이 연호를 고쳐 대창이라고 했다면서“이로써 원화제도는 폐지한지 29년 만에 부활했다”고 덧붙이고 있다.<sup>25</sup>『삼국사기』신라본기 진흥왕 29년(568)조를 보면“연호를 대창으로 바꾸었다”고 함으로 여기서 29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흥왕 원년이 된다.<sup>26</sup> 또한 진흥왕 23년에 화랑 사다함이 무리를 이끌고 대가야 정벌에 종군한 기사 등이 보여 화랑도는 진흥왕 통치말기인 37년이 아니라 진흥왕 초기에 제정됐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욱이 김대문은『화랑세기』서문에서“지소태후가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신라왕조사에 왕권강화의 한 축으로 자리하며, 신라 국력신장의 원동력이 된 화랑도의 창시자는 지소태후였다. 지소태후는 541년 박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임명하고 중앙과 지방의 군대에 관한 업무를 맡겼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신라는 전통적으로 귀족 협의체인 화백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 왔다. 그런데 병권을 병부에 일임하고 병부령에게 그 권한을 맡겼다는 것은 왕이 화백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지소태후가 병부령을 임명하고 그에게 중앙과 지방의 군대에 관한 업무를 일임함으로써, 이는 병부령을 직접 부리는 왕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sup>28</sup>

### 2. 3. 원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랑제도의 출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원화라는 존재이다. 그러면, 화랑도의 전신이었던 원화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원화제도의 기원은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원화는 가배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본다. 6부 연합체인 신라는 6부를 반씩 두 편으로 나눠서, 두 왕녀로 하여금 각각 부 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였다. 이들 두 편으로 하여금 음력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길쌈 시합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길쌈을 적게 한 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긴 편을 대접하였다. 이때 노래와 춤과 온갖 오락이 곁들여졌다. 이 행사를 가배라고 했는데, 한가위 즉 추석의 기원이 되었다.<sup>29</sup> 특히 가배의 행사를 2명의 왕녀가 관장하고 그것이 6부 공동의 행사로서 춤과 노래가 함께 연출되었다는 것은, 왕실 주도로 2명의 원화를 두어 6부 자제들로 하여금 무리를 이루게 하고 6부의 화목을 도모한 사실에 상응한다. 따라서 두 왕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배의 운영원리가 원화제에 계승되었을 가능

<sup>25</sup> 김대문, **화랑세기**, “6세 세종”, p. 78-79.

<sup>26</sup> 따라서 김태식은 원화설치와 원화폐지 및 화랑도의 설치가 진흥왕 37년 한 해에 일어난 것처럼 기술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오류가 아니라, 진흥왕 원년에 설치된 화랑도가 29년 만에 폐지되면서 원화가 다시 설치되었다가 곧 다시 화랑도가 부활한 사건을 응축한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파주: 2002, p.124.

<sup>27</sup> 김대문, **화랑세기**, p.4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278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2781)

<sup>28</sup> 박영규, **신라왕조실록**, p. 236; 김선주, “신라의 여성정치가 지소태후”, p.193-194.

<sup>29</sup> 김부식, **삼국사기 I**, 신라본기 제1, “유리 이사금”, p.71-72.

성이 높다.<sup>30</sup>

이 가배의 전통과 원화와의 관계를『삼국유사』의 진술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삼국유사』는 진흥왕의 화랑도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왕은 또 나라를 흥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풍월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명령을 내려 좋은 집안의 남자 가운데 덕행이 있는 올바른 사람을 뽑아 화랑이라 고치고, 맨 먼저 설화랑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이것이 화랑 국선의 시초다.<sup>31</sup>*

진흥왕은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풍월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행한 것이 화랑도의 설치라고 한다. 풍월도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것이 귀족 자제들의 정치적 소양과 덕목을 기르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화랑도의 운영원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 화랑도는 원화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 곧 남모와 준정간의 질투로 빚어진 불안을 보완하는 한편 본래의 인재선발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제정되었을 것이다. 사실 원화 남모와 준정간의 불화는 가배에서의 경쟁처럼 6부 체제하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화랑을 양가에서 선발하였다는 것은 원화제 중심의 과도기적 6부 천거제를 국가와 진골귀족이 주도하는 인재 선발방식으로 전환한 조치로 이해된다. 즉, 진골귀족 자제의 정치훈련을 기하고 6부민 자제를 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존의 귀족자제들의 사교의 장이었던 풍월도와 6부 자제 중심의 단체인 원화제를 통합하여 화랑도를 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2</sup>

한편『화랑세기』에서는 원화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화랑은 선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신궁을 받들고 하늘에 대제를 행하는 것은 마치 연의 동산, 노의 태산과 같다. 옛날 영부인이 선도를 좋아하여 미인을 많이 모아 이름하기를 국화(國花)라 하였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여자로서 원화(源花)를 삼게 되었는데,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하여 국민으로 받들게 하였다.<sup>33</sup>*

이 진술을 통해 화랑의 원류는 원화이며, 원화는 여성이었으며, 원화든 화랑이든 그 본래의 기능은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화랑도의 원류가 원화이며 진흥왕때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했음은『삼국사기』와『삼국유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두 사료 모두 원화가 여성인 남모와 준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라에는 이미 건국 초기에 원화 혹은 원화와 비슷한 조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남해왕 때 박혁거세 시조묘 제사를 남해왕의 누이동생이었던 아로공주가 담당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 이후 역대 왕들은 신궁이나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한 제사를 주관한 집단이 원화를 우두머리로 한 선도였

<sup>30</sup>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서울: 2013, p. 392.

<sup>31</sup> 일연, 삼국유사, 탐상 제4, "미륵선화 미시랑과 진자사", p. 349.

<sup>32</sup>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p.392; "신라 남성 이끌던 두 여성, 준정과 남모의 비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278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2781)

<sup>33</sup> 김대문, 화랑세기, p.45.

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남해왕의 누이였던 아로공주는 1세 원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국가 제사권을 왕실의 왕녀가 장악했던 제사장적 전통이 이어지면서 법흥왕 후반기에는 지소부인이 제사를 주관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소부인은 제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을 두게 되었고, 그것이 원화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5</sup>

이런 맥락에서 원화의 존재와 관련하여 여관의 존재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지소부인은 입종 갈문왕의 사망 이후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왕비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였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제사를 행할 때 이를 보좌하던 여관(女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원화는 이 시기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신성성과 제사와 관련된 여관으로서의 지위를 기반으로 여성으로서 무리를 이끌 수 있었다. 따라서 원화는 지소부인이 이전부터 있었던 제의체계를 정치적인 권력 확보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제의적 체계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원화제는 여사제를 보좌하는 여관의 성격을 바탕으로 지소태후의 사적 정치조직으로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원화제의 기원과 성립은 지소태후에 의해 전통적인 제의체계 속에서의 여관이라는 존재를 인적기반의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36</sup>

지소태후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화가 발전하여 인재 선발의 기능까지 담당하였던 것은, 추천제에 의한 인재 선발에서 보다 더 확실한 인재 선발을 하고자 하는 왕실의 의도를 원화가 충족시켰을 것이다. 추천제에 의한 인재 선발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명을 모아 그들의 행동을 지켜본 다음 그 가운데서 인재를 선발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재 선발이 한단계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소태후에 의해 만들어진 원화는 처음과 달리 더욱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이러한 가능성은 원화와 화랑이라는 용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화랑'에서 '화(花)'는 여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서 남모랑과 교정랑을 '양화(兩花)'라고 표현한 것도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또한 화랑을 선출할 때 미모의 남자로 뽑아서 장식했다는 기록 역시 아직 원화의 여성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원화'의 경우는 직역하면 '화의 근원'이라는 뜻이 되어, 화랑의 기원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로 볼 수 있다.<sup>38</sup>

## 2. 4. 화랑의 파맥과 배후 세력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랑도의 전신인 원화에도 가배 전통에서 내려오는 신라왕실의 왕녀들의 역할이 큰 비중으로 자리했다. 원화의 기능을 보강하여 인재양성을 통해 신라 왕실의 왕

<sup>34</sup> 이종욱, **화랑**, p.161;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p.95.

<sup>35</sup> 조범환, "신라 원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탐구**, 한국고대사탐구학회, Vol.11(2012), p.11, 14.

<sup>36</sup>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p.119.

<sup>37</sup> 조범환, "신라 원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p.15.

<sup>38</sup>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p.119-120.

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화랑도의 실제적 설립자는 지소태후였고, 화랑도를 폐지한 자는 신문왕의 모후인 자의왕후로 화랑도를 만들고 폐지한 주인공이 모두 여성이었다. 이후 화랑도를 통치하고 화랑도에 대한 실제적 권력을 행사한 이들도 신라왕실의 왕비 혹은 태후들이었다. 540년부터 681년까지 화랑도의 우두머리인 32명의 풍월주와 그 부제의 임명에 힘을 발휘한 세력도 왕실의 여인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진흥왕의 모후인 지소태후와 애첩이었던 미실이었다. 1세 풍월주 위화랑부터 6세 풍월주 세종까지의 풍월주 임명의 배후는 지소태후였고, 또 6세 풍월주 세종의 임명과 퇴임에 미실의 힘이 작용하였다. 7세 풍월주 설화랑에서 16세 풍월주 보종까지는 미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미실은 비보랑공을 위로하기 위해 그가 추천한 자를 풍월주로 많이 뽑았는데, 보리공, 서현공, 용춘공 등이 모두 비보랑이 추천한 자들이었다.<sup>39</sup> 특히 26세 풍월주 진공에서 32세 풍월주 신대공까지(681) 화랑도는 흠돌 일파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27세 풍월주 흠돌의 어머니 정희는 유신공의 누이였다. 따라서 흠돌은 무열왕의 왕비 문명왕후(문희)의 조카이기도 했으므로 권세가 내외를 압도했다고 한다.<sup>40</sup> 문명왕후를 배경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흠돌은 신문왕 때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화랑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화랑도는 그 규모와 세력이 확장되면서 여러 파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파맥의 중심에 왕비족 가문과 태후가 후원자로 자리했다. 실제로 10세 풍월주 미생랑 때에 화랑도는 5개의 파로 갈렸다. 첫째는 통합원류파로 이들은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해 국력을 강하게 하려는 자들로, 대개 문노파<sup>41</sup> 중 가장 정예들이었다. 둘째는 대원신통을 받들려고 하는 자들로 일명 미실파로 하종, 구륜공 등이 중심이었다. 셋째는 진골정통을 받들려고 하는 자들로, 일명 문노파로 가장 권력이 있으며 옛 규정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지소태후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로 보리랑, 숙리부 등이 중심이었다. 넷째는 이화류(二花流)로 문노 정파와 통합파 중에서 혼성된 자들로 정숙태자를 풍월주로 세우고 원광을 부제로 삼으려 했다. 다섯째는 가야파로 천주공을 풍월주로 세우고 서현랑을 부제로 삼으려고 했다.<sup>42</sup> 이 파맥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파맥이 진골정통, 대원신통 그리고 가야파였다. 특히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은 왕비족 가문으로, 인통(姻統)<sup>43</sup>이었다. 인통은 여자들로 이어지는 모계 계승을 하였다. 인통은 왕을 비롯한 지배세력이 혼인을 한 계통으로, 성골 출신의 왕은 왕비족 출신의 여인과 결혼해야만 왕으로서의 위치를 굳힐 수 있었다. 그래서 신라 왕실에서는 족혼이나 근친혼이 성행할 수 밖에 없었다.

진골정통은 구도공과 혼인한 조문국 운모공주의 딸 옥모의 모계 후손으로 이어졌고, 지소태후가 우두머리로 있던 집단이었다. 대원신통은 고구려 출신 보미로부터 시작되어 진흥왕의 왕비인 사도부인을 우두머리로 했던 집단이었다.<sup>44</sup>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에는 늘 수주(首主)가 있었고 세대

<sup>39</sup> 이종욱, **화랑**, p.147-148; 하현진, 『화랑세기』에 나타난 신라 여성의 지위와 활동, p.109-110.

<sup>40</sup> 김대문, **화랑세기**, “6세 진공”, p.217.

<sup>41</sup> 문노는 8세 풍월주로, 화랑들의 세계에서 검술이 뛰어났던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종욱, **화랑**, p.252-253; 김대문, **화랑세기**, “8세 문노”, p.97; 김대문, **화랑세기**, “9세 비보랑”, p.106; 김대문, **화랑세기**, “4세 이화랑”, p.60

<sup>42</sup> 김대문, **화랑세기**, “10세 미생랑”, p.113-114; 이종욱, **화랑**, p.297-298.

<sup>43</sup> 인통은 신라 사회에서 왕비를 배출하는 계통으로, 모계 즉 여자에서 여자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http://www.culturecontent.com>

<sup>44</sup> 김대문, **화랑세기**, “11세 하종”, p.128.

가 바뀌면서 그 수주도 바뀌었다.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의 왕후들은 화랑도를 후원하는 자들로 화랑도 파맥과 정치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풍월주 하종공과 보리공대 신라 조정의 행정은 만호태후, 사도태후, 지도태후 세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 때 궁중에는 3태후가 있어 행정을 했고,(진평)대왕은 어질고 효성스러워서 어른들의 명을 받들어 따랐다. 그러므로 낭도 중 승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태후궁에 많이 붙었다. 태상태후인 사도법주<sup>45</sup>는 미실공주로서 법운을 삼았다. 그러므로 정령이 미실궁에서 많이 나왔다. 그런데 법주의 딸 아양공주가 곧 서현의 어머니였기에 가야파의 태양이 되어 미실의 세력을 나누었다. 만호태후는 (진평)대왕의 어머니로 더욱 진평왕의 총애가 있어 진골정통의 수주가 되었다. 지도태후<sup>46</sup>가 태상태후와 만호태후 사이를 출입하며 문노 정파를 도왔다. 그러므로 비보랑이 지도의 아들 용춘공을 천거해 보리공을 대신하고자 했는데, 만호태후가 들어주지 않았다. 용춘공이 비록 (풍월주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낭도들이 많이 귀부했다. 서현랑이 말하기를, "용춘공은 선군(진지왕)의 아들인데 내가 어찌 감히 상대가 되겠는가?"했다. 그 낭도들을 사양해 용춘공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가야파가 또한 용춘공에게 돌아갔다. 역시 대원신통이었기에 미실파가 다투지 않았다. 낭도들이 축하해 말하기를, "좋은 사람을 얻었다."했다. 보리공 또한 용춘공을 사랑해 다른 무리를 규합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진골과 대원의 논쟁이 비로소 완화되었다. 하종공이 비록 모주(母主)에게 효성스러웠으나 형세를 살피서 따랐으므로 안으로는 그 눈에 찬성했으나 밖으로는 감히 말하지 못했다.<sup>47</sup>

위의 기록을 통해 만호태후는 진골정통을, 사도태후와 미실은 대원신통을, 지도태후는 문노정파를 후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진흥왕과 사도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아양공주는 서현의 어머니로 가야파의 태양이 되어 미실의 세력을 나누었다. 그런데 용춘공은 지도태후의 아들이기에 대원신통이었다. 따라서 미실파와 다투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서현랑이 낭도를 넘겨주어 가야파도 용춘공에게 가게 되었다.

화랑도의 파는 단순히 화랑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당시 신라는 많지 않은 지배 세력들이 왕을 둘러싸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다툼을 벌였다. 특히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은 왕비나 태후를 중심으로 그 계통이 유지되었다.<sup>48</sup> 풍월주들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화랑도가 반란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하자 끝내 화랑도를 폐지한 것도 제 31대 신문왕의 어머니인 자의태후였다.<sup>49</sup>

<sup>45</sup> 24대 진흥왕의 왕비인 사도왕후

<sup>46</sup> 25대 진지왕의 왕비

<sup>47</sup> 김대문, **화랑세기**, "11세 하종", p.130.

<sup>48</sup> 이종욱, **화랑**, p.304; 하현진, "『화랑세기』에 나타난 신라 여성의 지위와 활동", p.110-111.

<sup>49</sup> 김대문, **화랑세기**, "32세 신공", p.226.

## 2. 5. 화랑도와 관련된 여성들: 화주·봉화·유화

화랑도는 잘 짜여진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화랑도는 크게 화랑·낭두·낭도로 편제되었다. 화랑도의 조직체를 대략적으로 개괄해 보면, 풍월주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원화를 우두머리로 하는 집단이 있었다. 원화를 우두머리로 한 무리는 선도(仙徒)라 했다. 화랑도에는 화랑들 밑에 낭두가 있었다. 낭두는 현재 한국 군대의 부사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낭두 밑에는 낭도가 있었는데, 낭도는 원화 밑에도 있었다. 풍월주나 화랑은 물러난 후 상선·상화가 되었는데, 상선은 풍월주에서 물러난 사람을 가리키고, 상화는 풍월주가 되지 못하고 물러난 화랑들을 가리켰다. 이들 집단은 선문과 낭문을 구성했다. 그리고 화랑도와 관련된 여자로서 화주·봉화·유화 등이 있었다. 풍월주의 처는 화주가 되었고, 낭두의 딸들은 봉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sup>50</sup>

선문은 상선과 상랑이 상주한 곳으로, 상선은 퇴임한 풍월주이고 상랑은 현역 화랑이었다. 따라서 선문은 화랑 또는 퇴임 화랑들과 관련된 곳으로, 이러한 선문에는 낭두의 딸들인 봉화가 관련되었다. 낭두의 처들로 임신한 자들이 선문에 들어가 탕비가 되어 상랑과 상선의 총애를 받을 때까지 몇 날 또는 몇 달을 머물렀다고 한다.<sup>51</sup> 낭문은 낭도들과 관련된 곳이었다. 22세 풍월주 양도공 조에, 국초에 서민의 아들도 준수하면 낭문에 나아가 낭도가 되었다고 하며<sup>52</sup>, 서민의 딸들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자들은 낭문에 속해 유화가 되었다고 한다. 유화는 낭문에 들어가 30살까지 머물렀다고 한다.<sup>53</sup>

### 1) 화주

풍월주가 되면 그의 아내는 화주가 되었다.『삼국유사』효소왕대 죽지랑 조에 화주가 등장한다. 진평왕대의 화랑 죽지랑의 낭도 득오가 부산성의 부역으로 동원되어 모랑부 당전 익선 아찬의 발에서 일했다. 그때 죽지랑이 낭도 137명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가지고 간 떡과 술을 먹이고 익선에게 휴가를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뇌물을 준 후에야 허락을 받았다. 그때 조정 화주가 이 말을 듣고 익선을 잡아다가 잘못을 씻어주려 했는데 그가 도망했다. 이에 맞아들을 대신 잡아다가 한 겨울 추운 날씨에 성 안의 못에서 목욕을 시키니 얼어 죽었다고 한다.<sup>54</sup>

『화랑세기』에도 화주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다. 풍월주 22세 양도공의 처 보랑이 화주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p>50</sup> 이종욱, **화랑**, p.122-129.

<sup>51</sup> 김대문, **화랑세기**, "22세 양도공", p.194. 이것은 신라 사회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로 화랑도에 나타나는 마복자 개념이다. 마복자는 임신을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후 낳은 아들을 가리킨다. 마복자 제도를 통하여 마복자를 거느린 사람은 정치적 추종자를 얻게 되고 마복자는 정치적 후원자를 얻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입망의 법에 상선 혹은 상랑의 마복자만이 낭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복자 제도는 정치적·신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sup>52</sup> 김대문, **화랑세기**, "22세 양도공", p.193.

<sup>53</sup> 김대문, **화랑세기**, "22세 양도공", p.195.

<sup>54</sup> 일연, **삼국유사**, 기이 제2, "효소왕 대의 죽지랑", p.149-150.

(양도)공이 풍월주가 되자 (보량은) 스스로 아름다움이 쇠했다고 생각해 능보를 뽑아 화주로 삼으려 했다. 능보는 본디 보량의 침비였는데 승진해 난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선부의 사자로 통을 얻었는데, (진골)정통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화주가 아니면 내가 어찌 풍월주가 되겠는가?" 했다. 보량은 이에 기쁘게 화주의 지위에 올라 공과 더불어 축하를 받았다. 그때 공의 나이는 28살이었고, 보량의 나이는 33살이었다. 공은 낭정을 보량에게 많이 맡겼으나 큰 일은 스스로 맡았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화주가 집정한다고 생각했지만, 공은 실제로 큰 낭정을 결정했다.<sup>55</sup>

보량은 양도공보다 5살이 많았다. 스스로 아름다움이 쇠했다고 생각해 화주의 지위를 능보에게 물려주려 했다. 그러나 양도공은 보량이 진골정통의 통을 이었다고 하며 보량이 화주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화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주가 되기 위해서는 진골정통이나 대원신통의 인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풍월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통이 있는 여자를 화주로 삼아야 했던 것도 생각할 수 있다.<sup>56</sup> 화주는 낭정을 장악할 수도 있었다. 양도공조의 기록을 보면, 당시 보량이 낭정을 맡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큰 일은 양도공이 스스로 맡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화주가 집정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화주들은 이처럼 낭정에도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화랑도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했다. 12세 풍월주 보리공의 부인 만룡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진다.

공이 청렴결백하며 지조를 지켰으나, 낭주는 태후의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내리는 재물이 심히 많았다. 그러므로 집안 생활이 몹시 사치스러웠다. (이에) 공이 낭주에게 일러 "내가 낭도의 우두머리로 어찌 부귀를 누리겠는가. 나의 아내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하니, 낭주가 말하기를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낭군의 마음은 첩의 마음입니다. 어찌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그 재물을 모두 나누어 주니, 낭도들이 우러러보기를 부모같이 하였다. 무릇 근심과 재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과 낭주는 함께 가서 위로하고 구호하여 주었다. 그때 사람들이 두 성인이 순행하며 다스리는 것에 비교하였다. (만룡) 낭주는 왕의 누이라는 귀한 신분으로 지어미의 도리를 다했다. 공이 조금만 아파도 몸소 간호했으며, 음식과 의복도 친히 조리하고 손질해 올렸는데 반드시 공의 취향에 맞았다. 그러므로 공이 고맙게 여겨 다른 여자를 거느리지 않았고, 금슬이 비할 바 없이 좋았다.<sup>57</sup>

만호태후의 딸 만룡은 태후로부터 재물을 많이 받아 근심과 재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리공과 함께 가서 위로하고 그것을 낭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행적 덕분에 보리공과 만룡은 성인에 비유되었다. 또 25세 풍월주 춘창공은 늘 화주와 함께 낭두의 처와 딸들을 독력해 정포

<sup>55</sup> 김대문, **화랑세기**, "22세 양도공", p.192-193.

<sup>56</sup> 이종욱, **화랑**, p.169.

<sup>57</sup> 김대문, **화랑세기**, "12세 보리공", p.137-138.

를 만들어 출전한 낭도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몰래 서울과 시골을 다니며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을 구휼했다. 그리하여 인망이 크게 돌아왔다고 한다.<sup>58</sup> 이렇게 화주들은 단지 남편 내조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직접 낭정에 참여하며 사회활동을 하였고, 때로는 성인이라 칭송될 만큼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2) 봉화

봉화는 낭두의 딸이다. 『화랑세기』는 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낭두의 딸은 모두 선문에 들어갔는데, 이름하여 봉화라 했다. 위(상선·상랑)로부터 총애를 받지 못하면 시집을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다투어 청례를 하기 위해 아양을 떨었다. 총애를 받은 자는 봉로화라 했고, 그 중 아들을 낳은 자는 봉옥화라 했다. 옥로가 아니면 낭두에 새로이 오른 자들이 아내로 맞아 처로 삼지 않았다. 대개 처로 인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봉화는 청례를 하지 못하면 선문에서 늙어 예졸들에게 떨어졌다. 공은 이에 청례와 옥로의 폐단을 금했다.<sup>59</sup>*

양도공조에 나오는 위의 기록은 낭두의 딸들이 선문에 들어갔고, 그들을 봉화라 불렀음을 말하고 있다. 봉화는 상선·상랑의 총애를 받는 청례를 해야만 했다. 한편 선문의 여러가지 일을 봉화가 맡아서 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기록에서 낭두의 딸들이 봉화가 되어 선문에 머물며 일하는 동안 화랑들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시집을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옥로가 아니면 낭두에 오른 자들이 처로 삼지 않았던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위의 기록에 나오는 것과 같이, 처로 인해 귀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풍월주를 비롯한 화랑들은 봉화와 관계를 가진 후, 봉화가 혼인을 하면 그 남편의 후원자가 되었던 것이다.<sup>60</sup>

한편, 봉화를 거쳐 낭두의 처가 된 자들이 임신을 하면 다시 선문에 들어가 탕비가 되었다. 몇 날 또는 몇 달 만에 상선·상랑의 총애를 받으면 물러났다. 그때 남편은 재물을 들여 예를 갖추어 맞이하는 사함을 했다. 아들을 낳아 석 달이 되면 다시 선문에 들어가는데, 양과 돼지를 예물로 하는 세함을 했으며 총애를 받으면 물러났다. 이때 남편은 다시 사함을 해 맞았다. 이로써 낭두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곧 재산이 기울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sup>61</sup> 이렇듯 낭두는 그 딸과 처를 선문에 들여보내야 했다. 그것은 낭두들이 처와 딸들을 상선·상랑에게 받침으로써 낭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곧 색공(色供)<sup>62</sup>과 관련된 마복자 제도로, 마복자 제도를 통하여 마복자를 거느린 사람은 정치적 추종자를 얻게 되고 마복자들은 정치적 후원자를 얻는 관계가

<sup>58</sup> 김대문, **화랑세기**, "25세 춘장공", p.212.

<sup>59</sup> 김대문, **화랑세기**, "22세 양도공", p.194-195.

<sup>60</sup> 이종욱, **화랑**, p.172.

<sup>61</sup> 김대문, **화랑세기**, "22세 양도공", p.194.

<sup>62</sup>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색(sex)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화랑세기』를 보면 미실은 색공의 아이콘으로 동륜,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에게 색공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미실은 색공을 통해 여러 왕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굳혔다고 할 수 있다.

형성되었다. 10세 풍월주 미생랑조에 보면, 당두가 자기의 처가 미생에게 색공만 하는 첩으로 되게 해달라고 미실에게 요청하는 내용과“공은 처첩이 많아 자식이 100명이고, 낭도는 만명이다”라는 기록이 나온다.<sup>63</sup> 처첩이 많으므로 자식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색공을 통해 태어난 자식들과 색공을 했던 첩들을 다 포함하는 수치일 것이다. 입망의 법에 상선 혹은 상랑의 마복자만이 낭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화랑도에서 마복자 신분은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 3)유화

『화랑세기』양도공 조에는 유화에 대한 기록도 있다. 유화도 이 사료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존재이다.

*서민의 딸들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자들은 낭문에 속해 유화가 되었고, 30살이 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공이 또한 그 폐단을 바로 잡으니, 향리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sup>64</sup>*

유화는 일찍부터 있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세 풍월주 미생랑 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미생랑이 남도에 갈 때마다 유화로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는 자가 천백을 헤아렸다고 한다.<sup>65</sup> 유화가 적은 수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랑세기』에는 유화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나온다.

*이에 연호를 고쳐 대창이라 했다. 이날 밤 진흥제와 미실은 남도의 정궁에서 합환을 했다. 낭도와 유화들로 하여금 새벽까지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서로 예를 갖추지 않고 야합하게 했다. 성종의 미녀로서 나온 자가 또한 만중이었다. 등불의 밝음이 천지에 이어졌고, 환성이 사해의 물을 끓여오르게 했다. 진흥제와 원화가 난간에 다달아 구경을 했다. 낭도들이 각기 한 명의 유화를 이끌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그 아래를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만세 소리가 진동했다. 진흥제의 기쁨이 매우 커서 원화와 함께 채전을 무리에게 던져주며 말하기를,“저들도 각기 자웅이고 나와 너도 또한 자웅이다.”했다.<sup>66</sup>*

위의 기록은 진흥왕 29년(568) 원화를 부활하고 나서 벌인 축제의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당시에는 연호까지 바꾸었다.낭도 한 명에 유화 한 명을 이끌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다.이 기록을 통해 유화가 적지 않았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다. 남도의 유화에 대한 기록은『화랑세기』설화랑 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up>63</sup> 김대문, **화랑세기**,“10세 미생랑”, p.116,118.

<sup>64</sup> 김대문, **화랑세기**,“22세 양도공”, p.195.

<sup>65</sup> 김대문, **화랑세기**,“10세 미생랑”, p.115.

<sup>66</sup> 김대문, **화랑세기**,“6세 세종”, p.79.

*(설화랑의) 아버지는 설성공이며, 그 출신을 알지 못한다. 설성의 어머니는 고야촌장 호진공의 후손이다. 아버지를 알지 못해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어머니는 빼어난 미녀로 일찍이 남도에 유화로 있었는데 우연히 좋은 낭도를 만나 상통을 해 잉태를 했고, 그대로 서로 헤어졌다.<sup>67</sup>*

설성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통해 유화가 남도에 머무르는 동안 낭도들과 상통도 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유화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도 나온다. 대남보의 딸은 용춘공을 위해 스스로 정절을 지키고 유화가 되기를 거부했다. 공이 딱하게 여겨 여러 차례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sup>68</sup>

### 3. 나가는 말

화랑도는 신라가 토착세력인 진한 6부 체제에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해가고, 또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뤄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화랑도는 남성들만의 집단이 아니라 설립과 조직체계 전반에 걸쳐 신라 여성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별히 뒤늦게 세상에 나온 『화랑세기』의 출현으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라의 독특한 사회현상과 화랑도에서의 여성들의 두드러진 활약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화랑도의 설치와 풍월주의 임명 그리고 화랑도의 파맥형성 및 폐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신라 왕실의 여성들이 있었다. 원화를 폐지하고 풍월주를 우두머리로 한 화랑도를 편성한 사람은 24대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후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왕권강화에 공헌했던 화랑도가 왕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안정을 뒤흔드는 반란의 온상지로 변모하자 과감히 풍월주 중심의 화랑도를 폐지한 자는 31대 신문왕의 어머니인 자의태후였다. 선문으로 들어가 낭도들의 정치적·사회적 신분의 발판을 이뤄준 것은 낭도들의 처나 딸들인 봉화였고, 풍월주의 지위를 지탱해 준 주요 기반들 중 한 요소도 풍월주의 아내인 화주의 출신 신분이나 골품이었다. 낭문에는 유화들이 거주함으로써, 낭문은 낭도나 낭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유화들의 사회적·활동적 공간이기도 했다.

신라가 국가적 규모를 갖추갈 때 중요한 조직으로서 기여했던 원화제도나 화랑도의 실세들 또한 왕실의 공주나 왕후 혹은 태후들이었다. 이 또한 다른 왕조사에서는 볼 수 없는 신라 사회에서만 보여지는 여성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화랑도와 신라 여성들의 관계는 신라 사회에서 자치하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고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사회는 신라인들만의 통치원리가 있었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화랑도와 여성들의 관계는 신라인들과 신라인들이 형성한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sup>67</sup> 김대문, **화랑세기**, "7세 설화랑", p.90.

<sup>68</sup> 김대문, **화랑세기**, "13세 용춘공", p.143-144.

## 참고문헌

-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역사와 현실**, Vol.67(2008), 101-129.
-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카톨릭대학교 국사과 석사논문, 2007
- 김대문, **화랑세기-신라인의 신라 이야기-**,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서울: 1999)
- 김대문·각훈, **화랑세기/ 해동고승전**, 여성구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서울: 2012)
- 김부식, **삼국사기 I, II**, 이강래 역, 한길사, (파주:1998)
- 김선주, “신라의 여성정치가 지소태후”,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Vol.9(1988), 181-195.
- 김선주,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활동”,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vol.77(2005), 1-31.
-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파주: 2002)
- 도널드 쿼터트, **오스만 제국사(1700-1922)**, 이은정 역, 사계절,(파주: 2008)
- 리선근, **화랑도와 삼국통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서울: 1974)
-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서울: 2013)
- 박영규, **신라왕조실록**, 웅진 지식하우스,(파주: 2004)
- 서익식, **한국사 이야기-고조선·삼국-**, 가람기획,(서울: 2015)
- 소이원, **21세기 화랑도**, Essay, 2010
- 손인수, **신라 화랑도의 공간**, 문음사,(서울:1996)
- 신채호, **조선상고사**, 위즈덤 하우스, 김종성 역,(고양: 2014)
- 이종욱, **화랑**, 휴머니스트,(서울: 2003)
- 이희수, **터키사 100**, 청아출판사, (파주: 2017)
- 이희철, **튀르크인 이야기**, 도서출판 리수,(서울: 2017)
-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역, 민음사, (서울: 2008)
-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터키사-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터키-**, 휴머니스트, (서울: 2010)
- 전덕재, “정치 운영 원리와 신분제-고대 사회의 핵심 키워드, 부와 골품”, **한국고대사 2**, 김재홍 외 3명, 푸른역사,(서울: 2016), 112-162.
- 조범환, “신라 원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탐구**, 한국고대사탐구학회, Vol.11(2012), 5-33.
- 하현진, “『화랑세기』에 나타난 신라 여성의 지위와 활동”,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vol.7:2(2010), 82-120.
- Kemal Beydili, “Yeniçeri”, **İslam Ansiklopedisi**, Türkiye Diyanet Vakfı, İstanbul, 2013, Cilt 43, 450-462.
- 기타**
- KBS 역사스페셜, “화랑세기 필사본의 미스터리”, (1999.07.10)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278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2781), “신라남성 이끌던 두 여성, 준정과 남모의 비극”
- <http://www.culturecontent.com>